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Relationship between Spouse's Covert Narcissism and Marit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김성미, 이수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Sung-Mi Kim(foolbo@naver.com), Su-Lim Lee(sulimhm@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 기혼자 300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결혼만족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결혼만족도 및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결혼만족도의 경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지각된 배우자 | 내현적 자기애 |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결혼만족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adaptive/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pouse's covert narcissism and marital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300 adults who were marri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subjected to covert narcissism, marital satisfaction,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scale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followed. First, perceived spouse's covert narcissis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marital satisfaction and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whereas i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The marital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but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Second, adaptive/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perceived spouse's covert narcissism of on marital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 **keyword** : | Perceived Spouse | Covert Narcissism |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 Marital Satisfaction |

1. 서론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를 공동 저술한 사회심리학자 Twenge와 Campbell[1]에 따르면, 현재 인구 전반의 자기애성 징후가 비만 같은 여타 공중 보건 문제 못지않게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자기애적 성격은 자기몰두적인 경향이 많아서 관심영역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타인에게 확대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자기애적 성격 특징으로 인하여 기능손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이 대인관계라고 볼 수 있다. 건강한 자기애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적응의 표시이나, 병리적 자기애는 지나친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고, 관계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에 빠지게 한다[2].

Wink[3]는 자기애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나누었다. 이 두 자기애는 모두 거대 환상과 특권의식, 자만심,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는 측면과 웅대하지만 취약한 자기개념이 핵심특성이다. 하지만 두 자기애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상당히 다르며, 대인관계에서 보여 지는 모습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는 소극적인 형태의 적대적 특성을 보인 반면, 외현적 자기애는 지배적이면서 적대적 모습을 보였다[4]. 또한 김소연[5]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를 다룬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생, 청소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연구대상이 자기애성향자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실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들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배우자이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맞춰줄 것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정서에 압도당하고, 실망, 분노 등을 표출하며,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수동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2]. 따라서 자기애성향의 배우자를 둔 경우에, 부부관계에

서의 갈등이 생기고 결혼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기혼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고,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으며[6], 증가되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7]. 또한 분노와 수치심에 취약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가 이런 정서를 어떻게 인지적으로 재평가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공격 행동의 정도도 달라진다고 하였다[8][9]. 대인관계 순환모델(interpersonal transactional cycle model)[10]에 의하면, 개인의 대인관계문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보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그 반응은 다시 그 사람이 가진 기존의 문제를 강화하고 유지하게 되는 일련의 악순환적인 상호과정이라고 한다. 즉,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정서조절의 취약성은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에게 부정적 정서 반응을 유도하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 또한 불안정한 정서경험과 정서조절 곤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부정응적인 관계 패턴은 부부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특히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관계 패턴은 상대 배우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와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상대 배우자에게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자기애성향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기혼자들의 결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을 하기 위함이다. 상담현장에 찾아오는 많은 내담자들 중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의 자기애성향 때문에 힘겨워하는 부분도 많이 볼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배우자의 성향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애성향의 배우자와 관계 문제를 잘 풀어가고 결혼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한편,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해보면, 대부분이 자기애성향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해 연구되었다. 자기애성향자가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려된 변인들은 자아존중감[11], 탄력성[12], 자기효능감[13], 자기개념 명확성[14], 인지적 공감[15], 인지적 정서조절전략[16], 적극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감 상승[17] 등이 있다. 위의 변인들 중에서, 정서조절 변인은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인 낮은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 정서회피나 양가적 표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람들은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정서가 미치는 영향을 최대화한다. 이처럼 정서 상태를 사회문화적 틀에 맞추어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과정을 '정서조절'이라고 한다[18]. 여러 정서 연구자들은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이 개인이 정서 경험을 지각하고 또한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어서 정서경험의 내용과 정서를 변화시키며,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심리-신체적 반응양식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 개인이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의 유형이 정서조절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19][20]. 정서조절은 생리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방법, 행동적 방법, 인지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21]. 하지만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서 외적이고 행동적인 정서조절보다 내적이고 인지적인 정서조절로 옮겨가기 때문에 성인의 정서조절전략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접근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기애성향자의 상대 배우자를 연구대상으로,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특히,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내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는 겉으로는 소위 '자기애적'인 잘난 척한다거나 거만하게 군다거나 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애적인 기제와 성격적 역동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갖는 사람은 수줍음을 많이 타고,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거나 자신이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한다. 또 주변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있는지, 혹시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작은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쉽게 입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 쉽다[2].

박세란[22]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자존감이 높으며, 자기개념이 긍정적이고, 실제-이상 자기 간 괴리가 적었다. 또한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우울하지 않고, 외향적이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보고함으로써 긍정적 자기평가 특성을 나타냈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았으며 실제-이상 자기 간 괴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를 감소시킬 수 없다 생각하고, 우울하고 내향적이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여, 부정적인 자기평가 특성을 드러냈다.

자기애성향자에 대한 관찰자 평정에서는 자기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반응으로 인해 실제 자기애성향자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평가가 나타나기도 한다.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자기고양적 방식으로 행동하여 긍정적 평가를 얻어내려 하였고[23][24],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는 자기소멸적 방식으로 행동하여 부정적 평가를 피하려 하였다[25].

위와 같이 기존의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연구는 직접 평가 시 부정적인 자기평가 특성을 보였고, 관찰자 평가 시 부정적 평가에 대한 회피적 특성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배우자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추구하는 목표와 욕구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 감

정 또는 태도이다[26]. 또한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 만족, 기쁨과 같은 주관적 감정으로서, 부부 및 가족 간의 애정,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자녀의 출산과 순조로운 성장, 사회적인 성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27]. 또한 결혼 만족도는 부부 각자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는 정도로도 설명된다[28].

김희진[29]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개인 내적(심리적) 요인, 대인간 요인, 사회 인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개인 내적 요인, 즉 심리적 요인에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성격, 가치관, 부모와의 애착 정도 등이 있다. Kelly와 Conley[30]는 결혼응에 있어 결정적인 변수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특성을 밝혀냈고, 이혼한 사람들 또는 배우자에게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정서적 불안정의 수준이 높음을 밝혔다. 둘째, 대인간 요인, 즉 부부 상호작용 요인에는 정서적 만족, 효과적 의사소통, 상호작용의 양, 문제 해결 방식, 역할 분담,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존중 등이 있다. 셋째, 사회 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자녀 수, 수입, 가족생활주기, 종교, 직업 등이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의미 있는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고 상대방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배우자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자신의 기준에 맞춰 행동하기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들의 이러한 성향은 기혼자들의 경우,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기도 한다[31].

갈등상태일 때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은 사람은 배우자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상대 배우자에게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소망을 가졌다. 그리고 이것은 상호작용하는 상대 배우자에게 불안정/무력하다는 부정적 대인지각을 하도록 만들었다[32]. 또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결혼 만족도가 통제 집단과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결혼 만족도가 통제 집단에 비해 떨어졌고,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배우자들도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와 통제 집단의 배우자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33].

최근까지 자기애성향자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자기애성향자의 상대 배우자의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더욱 부적응적이라고 알려진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3.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정서조절이란 자신의 정서를 유연하고 균형감 있게 조절하는 것으로[34], Western[35]은 정서조절을 유쾌한 정서를 최대화하고 불쾌한 정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식적, 무의식적 절차라고 정의하였다. Gross[36]는 정서조절에 대해 어떤 정서를 지니며, 언제 정서를 지니고, 어떻게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가에 대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이라 정의 내렸다. Garnefski, Kraaij와 Spinhoven[37]에 의하면 이러한 정의들은 의식과 무의식 뿐 아니라 인지적, 행동적, 생물학적 조절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Garnefski 등[37]은 흔해져서 사용되었던 정서조절과 행동조절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정서조절에 있어서 인지적 전략이 행동적 전략보다 지속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일어나기 전 인지적 단계에서 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16].

자기애성향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기애성향이 강할수록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보다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37][38], 결과적으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행동 문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문선, 이영순[39]의 연구에 의하면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 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높은 적대감이나 분노감을 경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 또는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나[8][21],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대인관계문제를 다룬 연구[16][40]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결혼만족도를 다룬 연구[41]는 매우 미비하며, 특히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변인으로 배우자의 자기애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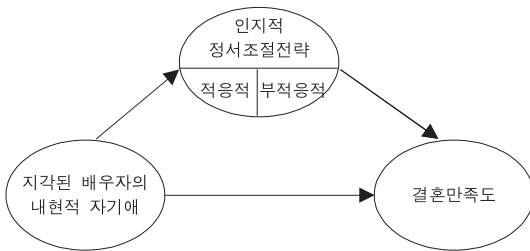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3. 결혼만족도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을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가설 2-1.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분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분 매개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거주 기혼 남녀 3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응답이 누락된 21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30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중 서울 거주자는 175명(58.3%), 경기 거주자는 125명(41.7%)이었고, 남성은 135명(45.0%), 여성은 165명(55.0%)이었다. 대상자들의 연령대는 20대 14명(4.7%), 30대 99명(33.0%), 40대 86명(28.7%), 50대 60명(20.0%), 60대 이상 41명(13.7%)이었다.

3. 측정도구

3.1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

Akhtar와 Thomson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강선희와 정남운[42]이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5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다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CNS23)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CNS145)으로 분류하였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이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이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본 척도는 총 45문항이며, 응답은 5점 Likert척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응답자들은 제시된 문장을 읽고 자신

의 배우자와 비슷한 정도를 5점(전적으로 그렇다)부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에서 평정하게 된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 측정을 위해 모든 문항의 ‘나’를 ‘내 배우자’로 변경하여 관찰자 평정으로 사용하였다. 초등학생 학부모가 자녀를 평정하는 아동정서행동선별검사지(CPSQ)[43]도 관찰자 평정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분석에는 전체 문항들의 평균점수와 하위요인 별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다.

3.2 결혼만족도 척도(K-MSI)

Syder의 결혼만족도 검사를 권정혜, 채규만[26]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 예비검사를 거쳐 최종문항을 선정하여 만든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사용하였다. K-MSI는 1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0 문항으로 ‘예/아니오’로 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전반적 불만족 척도(GDS) 22문항을 5점 척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전반적 불만족 척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나 불만족을 말해주는 지표로서 임상이나 상담 장면에서 부부관계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로 사용할 수 있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본 척도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응답자들은 주어진 문항을 읽고 자신의 결혼생활과 유사한 정도를 5점(전적으로 그렇다)부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에서 평정하게 된다. 분석에는 전체 22문항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이다.

3.3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CERQ)

Gamefski가 개발하고 김소희[44]가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사용하였다. 총 9개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 중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다. 그리고 반추, 자기 비난, 타인비난, 파국화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다. 한 요인 당 4문항씩 총 36문항으로 5점 척도이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었다.

본 척도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응답자들은 제시된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유사한 정도를 5점(전적으로 그렇다)부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에서 평정하게 된다. 분석에는 적응적/부적응적 전략의 문항들과 각 세부전략들의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이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척도별로 Ch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고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실시하였다. 분석은 Baron과 Kenny[45]가 제시한 절차를 따랐다. 이후 간접효과의 유의미성 검증에는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사용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후, 구간 내에 0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때 부트스트랩 샘플은 2,000개로 지정했으며, 신뢰구간은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먼저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변인들의 왜도값은 -.80에서 .57, 첨도값은 -.56에서 2.59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est, Finch와 Curran[46]의 정규분포의 기준(절대값 기준 왜도<2, 첨도<7)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

| 변인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에 전체 | 1.20 | 4.44 | 2.34 | .56 | .42 | .32 |
| 인정욕구 | 1.00 | 4.78 | 2.63 | .71 | .17 | -.17 |
| 착취/자기중심성 | 1.00 | 4.44 | 2.12 | .68 | .57 | -.14 |
| 소심/자신감부족 | 1.00 | 4.13 | 2.45 | .68 | .09 | -.56 |
| 목표불안정 | 1.00 | 4.67 | 2.22 | .77 | .37 | -.38 |
| 과민/취약성 | 1.00 | 5.00 | 2.29 | .68 | .52 | .61 |
| 결혼만족도 전체 | 1.18 | 5.00 | 3.60 | .78 | -.56 | .12 |
| 적응적 전략 전체 | 2.10 | 5.00 | 3.61 | .46 | -.16 | .59 |
| 긍정적 초점변경 | 1.25 | 5.00 | 3.26 | .69 | -.33 | .08 |
| 긍정적 재평가 | 1.00 | 5.00 | 3.69 | .63 | -.56 | 1.20 |
| 조망확대 | 1.50 | 5.00 | 3.57 | .58 | -.38 | .69 |
| 계획 다시 생각하기 | 2.25 | 5.00 | 3.92 | .54 | -.19 | .36 |
| 수용 | 1.00 | 5.00 | 3.62 | .56 | -.80 | 2.59 |
| 부적응적 전략 전체 | 1.75 | 4.25 | 2.88 | .46 | .00 | -.22 |
| 반추 | 1.00 | 5.00 | 3.28 | .62 | -.31 | .34 |
| 자기비난 | 1.00 | 5.00 | 3.07 | .62 | -.56 | .81 |
| 타인비난 | 1.00 | 5.00 | 2.64 | .64 | .19 | .39 |
| 파국화 | 1.00 | 4.75 | 2.53 | .78 | .20 | -.50 |

2.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에, 결혼만족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관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에, 결혼만족도, 그리고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 2]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에 (이하 내현적 자기에)의 경우 결혼만족도($r=-.64, p<.001$) 및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하 적응적

전략, $r=-.15,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하 부적응적 전략)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37, p<.001$). 결혼만족도의 경우 적응적 전략과는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인 반면($r=.23, p<.001$), 부적응적 전략과는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36, p<.001$). 참고로 적응적 전략은 부적응적 전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정욕구($r=-.44, p<.001$), 착취/자기중심성($r=-.58, p<.001$), 소심/자신감부족($r=-.33, p<.001$), 목표불안정($r=-.56, p<.001$), 과민/취약성($r=-.59, p<.001$)의 5개 하위요인 모두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과 적응적/부적응적 전략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정욕구는 적응적 전략의 하위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적응적 전략의 4개 하위요인 즉, 반추($r=.24, p<.001$), 자기비난($r=.12, p<.05$), 타인비난($r=.20, p<.01$), 파국화($r=.23,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취/자기중심성은 적응적 전략 중 긍정적 초점 변경을 제외한 긍정적 재평가($r=-.18, p<.01$), 조망확대($r=-.20, p<.001$), 계획 다시 생각하기($r=-.30, p<.001$), 수용($r=-.12, p<.0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응적 전략에서도 자기비난을 제외한 반추($r=.18, p<.01$), 타인비난($r=.27, p<.001$), 파국화($r=.34,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소심/자신감 부족은 적응적 전략의 하위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적응 전략의 하위요인 중 타인비난을 제외한 반추($r=.16, p<.01$), 자기비난($r=.28, p<.001$), 파국화($r=.22,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목표불안정은 적응적 전략 중 긍정적 초점변경을 제외한 긍정적 재평가($r=-.23, p<.001$), 조망확대($r=-.22, p<.001$), 계획 다시 생각하기($r=-.33, p<.001$), 수용($r=-.18,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응적 전략 중에서는 타인비난($r=.15, p<.05$), 파국화($r=.32,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과민/취약성은 적응적 전략 중 계획

다시 생각하기($r=-.15, p<.05$)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적응적 전략의 하위요인 4가지 반추($r=.25, p<.001$), 자기비난($r=.21, p<.001$), 타인비난($r=.14, p<.05$), 파국화($r=.32, p<.001$)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결혼만족도와 적응적/부적응적 전략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혼만족도는 적응적 전략의 하위요인 긍정적 초점변경($r=.12, p<.05$), 긍정적 재평가($r=.19, p<.01$), 조망확대($r=.19, p<.01$), 계획 다시 생각하기($r=.26, p<.001$), 수용($r=.15,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응적 전략에서도 자기비난을 제외한 반추($r=-.22, p<.001$), 타인비난($r=-.21, p<.001$), 파국화

($r=-.42, p<.0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3.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총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역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게 된다. 마

표 2. 연구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
| 1 | 1 | | | | | | | | | | | | | | | | | | |
| 2 | .77 | 1 | | | | | | | | | | | | | | | | | |
| 3 | .80 | .68 | 1 | | | | | | | | | | | | | | | | |
| 4 | .67 | .27 | .28 | 1 | | | | | | | | | | | | | | | |
| 5 | .78 | .37 | .51 | .54 | 1 | | | | | | | | | | | | | | |
| 6 | .92 | .70 | .66 | .61 | .64 | 1 | | | | | | | | | | | | | |
| 7 | -.64*** | -.44*** | -.58*** | -.33*** | -.56*** | -.59*** | 1 | | | | | | | | | | | | |
| 8 | -.15** | -.00 | -.20*** | -.03 | -.26*** | -.09 | .23 | 1 | | | | | | | | | | | |
| 9 | .00 | .09 | -.01 | -.03 | -.07 | .02 | .12 | .65 | 1 | | | | | | | | | | |
| 10 | -.14* | -.05 | -.18** | -.01 | -.23*** | -.08 | .19 | .84 | .35 | 1 | | | | | | | | | |
| 11 | -.15** | -.04 | -.20*** | -.01 | -.22*** | -.11 | .19 | .82 | .47 | .63 | 1 | | | | | | | | |
| 12 | -.24*** | -.07 | -.30*** | -.06 | -.33*** | -.15* | .26 | .76 | .22 | .69 | .51 | 1 | | | | | | | |
| 13 | -.08 | .05 | -.12* | .01 | -.18** | -.04 | .15 | .78 | .35 | .58 | .55 | .60 | 1 | | | | | | |
| 14 | .37 | .29 | .31 | .27 | .24 | .34 | -.36*** | -.08 | -.04 | -.08 | -.06 | -.13* | .00 | 1 | | | | | |
| 15 | .23 | .24 | .18 | .16 | .09 | .25 | -.22*** | .16 | .05 | .14 | .08 | .17 | .18 | .74 | 1 | | | | |
| 16 | .17 | .12 | .01 | .28 | .06 | .21 | -.09 | .17 | .02 | .22 | .16 | .12 | .14 | .52 | .32 | 1 | | | |
| 17 | .21 | .20 | .27 | .05 | .15 | .14 | -.21*** | -.22*** | -.08 | -.26*** | -.14* | -.25*** | -.14* | .59 | .20 | -.09 | 1 | | |
| 18 | .36 | .23 | .34 | .22 | .32 | .32 | -.42*** | -.27*** | -.10 | -.28*** | -.21*** | -.33*** | -.13* | .84 | .52 | .23 | .46 | 1 | |

주. 1.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 전체, 2. 인정욕구, 3. 착취/자기중심성, 4. 소심/자신감부족, 5. 목표불안정, 6. 과민/취약성, 7. 결혼만족도 전체, 8. 적응적 전략 전체, 9. 긍정적 초점변경, 10. 긍정적 재평가, 11. 조망확대, 12. 계획 다시 생각하기, 13. 수용, 14. 부적응적 전략 전체, 15. 반추, 16. 자기비난, 17. 타인비난, 18. 파국화
* $p<.05$, ** $p<.01$, *** $p<.001$

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게 된다. 선행한 분석과정에서 매개경로들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간접효과와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확인하게 된다.

3.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먼저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 단계 | 예측 변인 | 준거 변인 | B | β | t | R ² | F |
|-----------------|---------|--------|------|---------|-----------|----------------|-----------|
| 1단계 (독립→종속) | 내현적 자기에 | 결혼 만족도 | -.90 | -.64 | -14.41*** | .41 | 207.53*** |
| 2단계 (독립→매개) | 내현적 자기에 | 적응적 전략 | -.12 | -.15 | -2.63** | .02 | 6.90** |
| 3단계 (독립, 매개→종속) | 내현적 자기에 | 결혼 만족도 | -.87 | -.62 | -13.98*** | .43 | 111.73*** |
| | 적응적 전략 | | .24 | .14 | 3.13** | | |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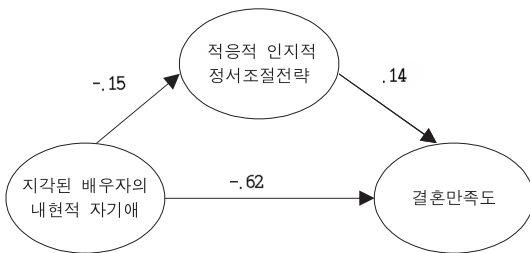


그림 2.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먼저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가 준거변인인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1단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64, t = -14.41,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R^2 = .41$). 2 단계에서는 내현적 자기에가 매개변인인 적응적 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15, t = -2.63, p < .01$), 회귀모형은 준거변인의 전체 변량 중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02$). 마지막 3단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에와 매개변인인 적응적 전략이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11.73, p < .001$), 회귀모형은 준거변인의 전체 변량 중 4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43$). 예측변인 수준에서는 내현적 자기에($t = -13.98, p < .001$)와 적응적 전략($t = 3.13, p < .01$)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현적 자기에는 결혼만족도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적응적 전략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현적 자기에 $\beta = -.62$, 적응적 전략 $\beta = .14$).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적응적 전략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내현적 자기에는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응적 전략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응적 전략을 거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해 확인해 보았다.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간접효과와 크기는 -.029, 이 값의 95% 신뢰구간은 -.080에서 -.005로 나타나 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응적 전략을 거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적응적 전략은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에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부분매개변인으로 볼 수 있다. 즉,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에를 높게 지각할수록 적응적 전략의 사용은 감소하고, 적응적 전략의 사용이 줄어들수록 결혼만족도 또한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에 지각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표 4.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 경로 | 간접효과 | Boot SE | LLCI | ULCI |
|--------------------------------------|-------|---------|-------|-------|
| 내현적 자기에 ↓ 적응적 전략 ↓ 결혼만족도 | -.029 | .018 | -.080 | -.005 |

주.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계수임

3.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 단계 | 예측 변인 | 준거 변인 | B | β | t | R ² | F |
|-----------------|---------|---------|------|---------|-----------|----------------|-----------|
| 1단계 (독립→종속) | 내현적 자기에 | 결혼만족도 | -.90 | -.64 | -14.41*** | .41 | 207.53*** |
| 2단계 (독립→매개) | 내현적 자기에 | 부적응적 전략 | .30 | .37 | 6.76 | .13 | 45.72 |
| 3단계 (독립, 매개→종속) | 내현적 자기에 | 결혼만족도 | -.82 | -.59 | -12.47*** | .43 | 111.72 |
| | 부적응적 전략 | | -.25 | -.15 | -3.13 | | |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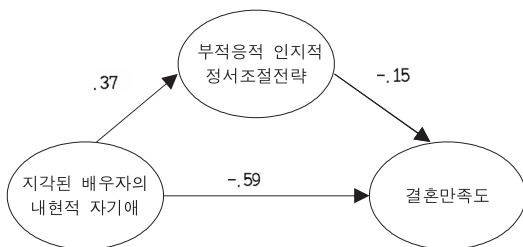


그림 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2단계의 분석결과부터 확인해보면 내현적 자기에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7, t=6.76, p<.001$), 회귀모형은 준거 변인의 전체 변량 중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13$). 다음 3단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에와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전략이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11.72, p<.001$), 회귀모형은 준거 변인의 전체 변량 중 4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43$). 예측변인 수준에서는 내현적 자기에($t=-12.47, p<.001$)와 부적응적 전략($t=-3.13, p<.01$)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현적 자기에와 부적응적 전략은 모두 결혼만족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내현적 자기에 $\beta=-.59$, 부적응적 전략 $\beta=-.15$).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부적응적 전략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내현적 자기에는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적응적 전략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적응적 전략을 거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해 확인해보았다. [표 6]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간접효과의 크기는 -.075, 이 값의 95% 신뢰구간은 -.134에서 -.033으로 나타나 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적응적 전략을 거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부분매개변인으로 볼 수 있다. 즉,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에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은 증가하고,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에 지각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표 6.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 경로 | 간접효과 | Boot SE | LLCI | ULCI |
|---------------------------------------|-------|---------|-------|-------|
| 내현적 자기에 ↓ 부적응적 전략 ↓ 결혼만족도 | -.075 | .026 | -.134 | -.033 |

주.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계수임

V. 논의

본 연구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각 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는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의 5개 하위요인 모두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배우자를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로 지각할수록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착취/자기중심성,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을 배우자가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와 낮은 결혼만족도가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배우자들이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와 통제 집단의 배우자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33]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같이 자신의 자기애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의 자기애를 관찰자 평정으로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배우자 평정으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는 적응적 전략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적응적 전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적응적/부적응적 전략의 하위요인별 상관을 살펴보면, 적응적 전략에서는 5개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응적 전략에서는 4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를 높게 지각할수록 적응적 전략은 적게 사용하고, 부적응적 전략은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적응적 전략 중 긍정적 조점변경과 수

용은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른 적응적 전략에 비해 회피적 성격이 강한 두 전략의 특성 때문에 파악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39]를 비교해보면, 우선 공통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부적응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배우자의 자기애성향이 높을 때, 상대 배우자 역시 부적응적 전략을 더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즉, 자신의 자기애성향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상대의 자기애성향이 높은 것 역시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전략을 사용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적응적 전략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 배우자도 자주 사용하는 정서조절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적응적 전략은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부적응적 전략은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적응적 전략은 5개의 하위요인 모두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응적 전략은 자기비난을 제외한 반추, 타인비난, 과국화가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적응적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고, 부적응적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응적 전략 중 계획 다시 생각하기는 다른 하위요인보다 결혼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응적 전략 중 과국화는 다른 하위요인 보다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결혼생활 중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계획 다시 생각하기가 결혼만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며, 반대로 과국화는 결혼만족을 낮추는 가장 부적응적인 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는 김소희[44]의 연구에서 계획 다시 생각하기가 심리적 안녕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둘째,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모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지각은 적응적/부적응적 전략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배우자를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로 지각할수록 적응적

전략을 덜 사용하고 부적응적 전략은 더 사용하게 되면서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계에서 정서적인 갈등을 겪는 경우 적응적 전략을 적게 사용한다는 선행연구[47]와 비교해보면, 배우자를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로 지각한다는 것은 정서적인 갈등을 겪을 때처럼 적응적 전략을 적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은정[32]에 의하면,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을수록 갈등상태일 때, 상호작용하는 배우자가 부정적 지각을 높게 하였고, 배우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높게 가졌다고 한다. 위의 선행연구가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상대 배우자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같은 대인반응을 연구한 반면, 본 연구는 상대 배우자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상대 배우자가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에 대하여 불안정/무력의 부정적인 지각을 갖는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라면, 본 연구의 결과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 지각이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을 증가시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결국 결혼만족도를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불안정/무력에 대한 지각은 우울감을 상승시키게 된다. 자기비난, 반추, 과국화는 높은 우울점수와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48]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우울감이 반추, 자기비난, 과국화와 같은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처럼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상대 배우자의 지각과 감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좀 더 확장하여 그러한 지각과 감정이 어떠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증가시키며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탐색해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결혼만족도를 적응적 전략이 매개함으로써 결혼만족도의 감소를 완충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다. 적응적 전략 중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는 것은 결혼만족도의 감소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며, 특히 계획 다시 생각하는 것은 더욱 완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초점을 변경하거나 수용하는 소극적 전략보다 좀 더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

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상대 배우자가 부부간 상호작용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재평가, 조망 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등의 적응적 전략의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결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기혼자 상담에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로 상담을 하는 경우, 개인상담, 집단상담 또는 상담교육 등의 장면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기법 적용을 통해 치료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인 치료적 기법으로는 우선, 부적응적 전략 중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 과국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의 'ABC 기법'과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적응적 전략 중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계획 다시 생각하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Beck의 인지치료기법 중 '활동계획표 사용'이나 '과제부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49].

본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최근 연구들과 달리, 그들의 배우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보고식 연구인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관찰자 평정 방식을 도입한 것과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상대 배우자의 내적 경험을 연구한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둘째,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한 매개효과의 영향력까지 알 수 있었다. 국내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나 우울 및 불안, 또는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둘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 결과들을 확장시켰다.

셋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지적 정서조절을 통해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을 제안하였

다. 이를 토대로 상담 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상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자기애성향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와 악순환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적응적 전략을 파악하여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치료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학력 및 직업 분포가 다소 편중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전체 성인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외적타당도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임상집단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결과를 확인 한 후, 본 연구와 비교하는 작업을 거쳐 연구결과를 확장시키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상대 배우자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이 또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을 때, 상호작용하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선행연구[32]에 의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정자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살펴봤는데, 이 두 변인으로 결혼만족도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부 공감, 의사소통 유형과 같은 추가적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도 필요해 보인다.

참고 문헌

- [1] J. M. Twenge and W. K. Campbell, *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 New York: Free Press, 2010.
- [2] 권석만, 한수정,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2000.
- [3] P. Wink, "Two faces of narcissism,"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4, pp.590-597, 1991.
- [4] 강연우,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5] 김소연,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6] J. Briere, *Inventory of altered self-capacities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2000.
- [7] 신혜인,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정서경험특성과 정서조절방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8] R. C. Martin and E. R. Dahl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9, No.7, pp.1249-1260, 2005.
- [9] M. Mikolajczak, D. Nelis, M. Hansenne, and J. Quoidbach, "If you can regulate sadness, you can probably regulate shame: Associations between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 regulation and coping efficiency across discrete emo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4, No.6, pp.1356-1368, 2008.
- [10] C. C. Wagner, D. J. Kiesler, and J. A. Schmidt, "Assessing the interpersonal transaction cycle : convergence of action and reaction interpersonal circumplex measure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No.5, pp.938-949,

- 1995.
- [11] 함경애, 이은혜, 박명숙, 천성문, “교사의 자기애적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6호, pp.3615-3631, 2013.
- [12] 최민경, 김중남, “청소년의 자기애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5권, 제4호, pp.747-763, 2010.
- [13] 박성애,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4] 강선영, 홍혜영, “직장인의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통합치료연구*, 제4권, 제1호, pp.25-51, 2012.
- [15] 배미정, 조한익, “내현적 자기애에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상담학연구*, 제15권, 제6호, pp.2417-2435, 2014.
- [16] 홍서윤,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에 성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2호, pp.73-95, 2014.
- [17] 이진숙, 현명호, “내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4호, pp.161-181, 2012.
- [18] 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K-CER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제14권, 제3호, pp.1773-1794, 2013.
- [19] R. S. Lazarus,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s: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44, pp.1-21, 1993.
- [20] J. J. Gross, “Emotion regulation: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Psychophysiology* Vol.39, No.3, pp.281-291, 2002.
- [21] 이서정, 현명호,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3권, 제4호, pp.887-905, 2008.
- [22]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4권, 제2호, pp.255-266, 2005.
- [23] C. C. Morf and F. Rhodewalt, “Narcissism and self-evaluation maintenance: Explorations in object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19, No.6, pp.668-676, 1993.
- [24] L. Carroll, N. Hoenigmann-Stoval, and G. I. Whitehead III,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narcissism,” *Psychological Reports*, Vol.79, pp.1267-1272, 1996.
- [25] S. B. Robbins and P. Dupont,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9, No.4, pp.462-467, 1992.
- [26] 권정혜, 채규만,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8권, 제1호, pp.123-139, 1999.
- [27] J. L. Hawkins,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0, pp.647-648, 1968.
- [28] F. P. Rice,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1979.
- [29] 김희진, “한국 부부의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5권, 제3호, pp.839-853, 2004.
- [30] E. L. Kelly and J. J. Conley,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No.1, pp.27-40, 1987.
- [31] 김우정, *기혼자들의 자기애성향, 공감, 자존감 및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2] 강은정, 장성숙, “자기애와 내현적 대인반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4호, pp.913-932, 2007.

- [33] 이성미, *자기에 성향자의 배우자 평가와 결혼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34] N. H. Frijda, *The emotions: Studies in emotion and social inter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35] D. Western,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affect regulation: Applications to social-psychological research," *J. of Personality*, Vol.62, pp.641-667, 1994.
- [36] J. J. Gross,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2, No.3, pp.271-299, 1998.
- [37] N. Gamefski, V. Kraaij and P. Spinhoven,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0, No.8, pp.1311-1327, 2001.
- [38] 이세연, 유미숙, "청소년의 자기에 및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7호, pp.101-128, 2010.
- [39] 강문선, 이영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2권, 제5호, pp.1545-1560, 2011.
- [40] M. Mikolajczak, C. Menil, and O. Luminet, "Explaining the protective effort of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regarding occupational stress: Exploration of emotional labour processes," *J.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41, pp.1107-1117, 2007.
- [41] 김두길, 유영달, "중년기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pp.177-191, 2015.
- [42] 강선희, 정남운,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4호, pp.969-990, 2002.
- [43] 진흥신, "초등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CPSQ)에 의한 정서·행동문제 특성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9권, 제4호, 2013.
- [44] 김소희,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5]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2, 1986.
- [46] S. G. West, J. F. Finch, and P. J. Curra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 issues and applications*(pp.56-75), Newbury Park, CA: Sage, 1995.
- [47] 박근아, *정서표현 양가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48] N. Gamefski, J. Teerds, V. Kraaij, J. Legerstee, and T. van den Kommer,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6, No.2, pp.267-276, 2004.
- [49] 권석만,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서울: 학지사, 2012.

저 자 소 개

김 성 미(Sung-Mi Kim)

준회원



- 201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상담심리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잠실중학교 전문상담교사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이 수 림(Su-Lim Lee)

정회원



- 2011년 ~ 2017년 8월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전공 교수

<관심분야> : 성인상담, 청소년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